

촬영일자 : 5/31 ~ 6/1 (금, 토)

	시나리오	장소(1)	장소(2)
문구점	스튜디오(1) / 길가(1) / 문구점(2)	경성대학교 308(?) /	광안초등학교 앞 '종합 문구'
우체통	스튜디오(1) / 길가(1) / 우체통(2)	경성대학교 308(?) /	경성대학교 우체국 앞
공중전화	스튜디오(1) / 길가(1) / 공중전화(2)	경성대학교 308(?) /	
극장/영화관	스튜디오(1) / 길가(1) / 극장(2)	경성대학교 308(?) /	경성대학교 내 극장

점차 희미해져가는 것들 ; 나를 기억해줘요

○ 공중전화 (소재)

“어쩌다... 한 번, 제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맘 편히 찾아오시도록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이미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지만, 절실한 순간 도움을 주는 공중전화가 고마운 날이다. 공중전화 같은 존재가 되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기다림 #공중전화부스

연서: 자신의 진심과 사랑이 담긴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

○ 나를 기억해줘 ; 나에게 있어서 점차 의미가 연해져 가는 것들

○ 4개의 에피소드 형식

○ 인터뷰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존재)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하는 인터뷰 진행.

○ 이 영상으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 (기획 의도)

⇒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의인화 시켜 표현해낸다.

차별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물체(장소)들이 사람이 되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전달.

- 질문)

- 자기소개

자기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당신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요?

마지막 공통 질문)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당신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나요?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사연을 받아보았는데요

래퍼런스)

[\[KCC건설 스위첸\] 2020 TVCF 문명의 충돌](#)

제작 일정 : 6월 둘째 주 (6/8~9) or 5월 셋째 주(5/18~19)

예산안 : 팀원 당 100,000원 예상

최소 인원 : EP01(1명) / EP02(5명) / EP03(6명) / EP04(6명)

EP1. 옛 문구점 (작은 보물상자)

S#1 스튜디오 안

Q.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해주세요.

A. (수줍은 듯 당차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이름은 문. 방구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S#2 한적한 길 가 (현재)

(얼굴에는 알록달록 이쁜 스티커들이 붙어 있고 입고 있는 주머니가 많은 옷 속엔 여러 종류의 물품이 들어있다. 덩그러니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 문방구)

(색연필을 주섬주섬 꺼내는) 저는 색연필, 싸인펜, 공기놀이, 줄넘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없는게 없어요!!

INS) 싸인펜, 공기놀이, 줄넘기,,, 여러 용품들

그런데 요즘은 찾아오는 애기들이 없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S#3 복잡스러운 길 가 (과거)

POV (카메라가 아이들의 시점)

아이1: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 아이2: 저도 이거 주세요!

(주머니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주며) 허허허, 이거 어떠냐! 하하하, 색종이 꺼내줄까?

(아이들 웃음소리)

S#4 한적한 길 가 (현재)

- 씩씩한 과거 회상과 다시 찾아주길 희망.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요즘은 인터넷이니 뭐니, 그런걸로 다 산다고 하더라구.. 세상 좋아졌지..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자주 못본다는게 나는 좀 아쉽더라고,,허허.

S#5 스튜디오 안

Q.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함박 웃음을 지으며)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S#6 복잡복잡한 길 가

(문구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들)

(디졸브) 문구점의 모습

EP2. 우체통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S#1 스튜디오 안

Q.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제동,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S#2 길 가

(목에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팻말을 걸고 서있는 우제동의 모습. 그 앞을 폰에서 눈을 못떼고 타자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간다)

요즘 길 가 지나가는 청년들 보면 손에서 폰을 못놓고 다니더라고? 우리 때의 감성이 사라진 거 같아서 아쉬워~

(수줍은 표정으로 손에 편지를 들고 있는 사람. 편지를 우제동 할아버지에게 건네준다 반대쪽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수줍은 미소와 함께 편지를 건네 받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식을 들어주고 전달해줄 때 저는 가장 보람을 느껴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하고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준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요?

S#3 스튜디오 안

Q.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A. 사람들이 각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S#4 길 가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과 그걸 보며 웃고 있는 우제동의 모습 표현)

(디졸브) 우체통의 모습

- 최소인원 : 주인공1명/ 연인(2), 군인, 어머니(2) = 5명

EP3. 공중전화/공중전화부스

S#1. 스튜디오 안

Q. 자기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김공중입니다.

S#2. 길 가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우두커니 우산을 들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모습)

(우산을 들고 서 있으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는 것 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의 상황들이 각양각색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가만히 들고 서 있는 사람. 비를 피해 우산에 잠깐 서 있다 다시 자기 갈 길 가는 사람들 / 더위를 피해 우산 밑에서 앉아 쉬는 사람들 /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옆에 꾸미고 서 있는 여자. 시간이 지난 뒤 여자의 남자친구가 등장하고 둘은 김공중의 옆을 떠난다)

S#3. 스튜디오 안

Q.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A.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맘 편히 저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거쳐 가는 모습들 셔터스피드 속도 조절로 표현, 그 사이 웃는 공중의 모습)

(디졸브) 공중전화 모습

- 최소인원 : 주인공1명/ 비 피하는 사람(1), 쉬는 사람들(2), 커플(2)= 6명

EP4. 극장 / 영화관

S#1 스튜디오 안

Q. 자기 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양연화라고 합니다.

S#2. 길 가

(혼자 감정 연기, 액션 연기, 무성 영화 등의 연기를 하고 있는 양연화. 하지만 양연화가 없는 듯 휴대폰(OTT, YOUTUBE)만 쳐다보며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왼쪽 오른쪽에 알람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후반작업.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 화면에선 넷플, 티빙 등의 OTT플랫폼이 보인다)

(여러 영화 포스터를 들고 서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포스터를 건네지만 사람들은 무시하며 지나간다)

저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과 행복함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고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거 같아요.

S#3. 스튜디오 안

Q.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S#4 길 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양연화의 모습)

(디졸브) 영화관의 모습

- 앞의 여러 에피소드가 버려져 있는 고장 난 “라디오” 에서 흘러 나오는 모습이 극장 화면 안에 보여진다. 마지막 사연을 끝으로 라디오는 완전히 고장나버리고 만다.
- 사라지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에피소드에 들어가도록.